

살던 곳서 건강한 노후 순천형 통합돌봄 확대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돌봄
식사 지원 등 서비스 대상 늘려

순천시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돋는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순천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 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 원스

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존에 서비스마다 각각 신청·제공되던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을 통합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순천시 자체 통합돌봄 사업 가운데 족도가 높았던 건강 식사지원, 식재료 지원, 밀키트 지원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 내 13개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해, 퇴원 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대한미용사회 고흥군지부 회원들이 지난 7일 소록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목욕·이미용…소록도 주민에 다양한 봉사

고흥군 3개 자원봉사단체 60여명

고흥소록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흥군 여성자원봉사회, 대한미용사회 고흥군 지부, 고흥군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3개 봉사단체 60여명이 지난 6·7일 소록도 주민들에게 다양한 봉사를 펼쳤다.

먼저 고흥군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25명이 지난 6일 목욕봉사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7일에는 대한미용사회 고흥군지부 회원들이 이미용 봉사를 펼쳤다.

소록도 자원봉사는 고흥군과 국립소록도병원이 2007년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고흥군지부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커트, 펌, 염색 등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 여성자원봉사회와 고흥군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목욕봉사를 통해 소록도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목욕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와 달리 반겨주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정이 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소록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작으나마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송고한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고흥군을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전 군민에 매달 15만원씩…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포식

2월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곡성군이 지난 7일 곡성 레저문화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비전선포식은 주민 삶의 안전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정책비전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곡성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군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 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행사를 통해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

형성하는 장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곡성군이 선도적으로 길을 열어 군민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여수시 노인일자리 발대식

전남 최대 343억원 투입

8100여명에 일자리 제공

여수시가 지난 7일 여수문화홀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발대식에는 여수시니어클럽 등 8개 수행기관 기관장·종사자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등 4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문강사를 초빙한 안전교육이 진행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시는 올해 전남 '최대' 규모로 3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힘을 더하는

소중한 사회활동"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쟁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dongbu@chonbuknews.co.kr

보성군 13~29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영농반 등 4개 과정, 15회 운영

보성군이 13일부터 29일까지 새해 영농을 앞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핵심 농업정책과 지역 맞춤형 재배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기술 향상과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영농반·지역특화반 3개 과정을 포함한 총 4개 과정이 15회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영농반은 오는 21일까지 읍·면 순회교육으로 진행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함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 농작업 안전 및 농업e지(차세대 농업인 맞춤 포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포함해, 디지털 기반의 영농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농작업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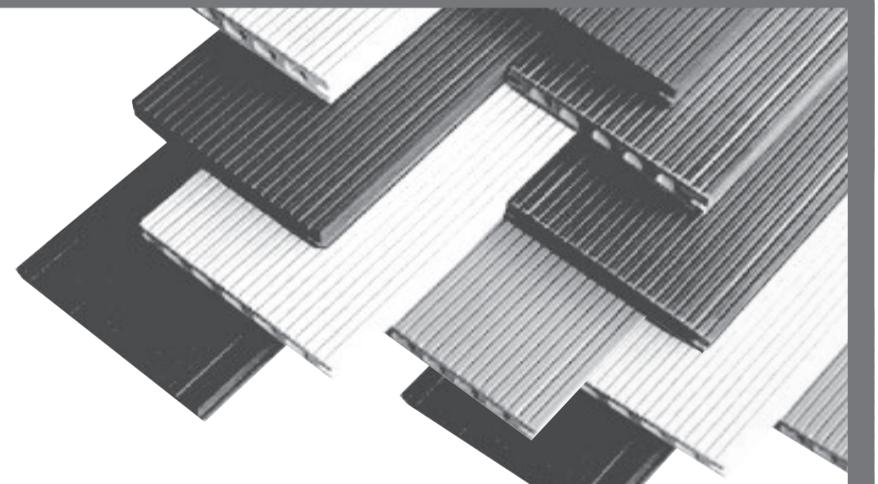
교육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숙희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한 해 영농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과 달라지는 농업정책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이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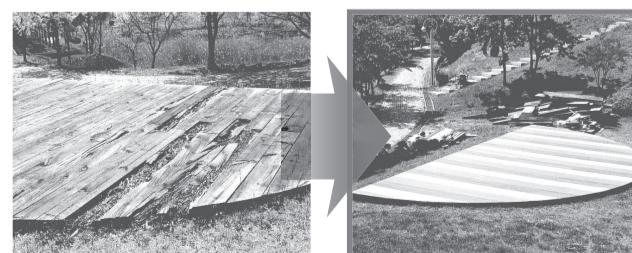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